

여성 자기서사의 서사적 특성 연구

- 『여원』 수기를 중심으로

장미영*

차례

1. 들어가는 말
2. 고백과 공감의 서사
3.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동의와 저항의 서사
4. 선택과 배제의 이분법적 서사 구조
5. 맺음말

국문초록

본고는 여성잡지 『女苑』에 실린 ‘수기’에 드러난 여성의 자기서사의 서사적 특성과 의미를 탐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수기’에 드러난 여성의 자기서사 특성은 평범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자발적으로 진솔하게 고백하고, 독자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확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이 자신의 체험을 자기서사화 한다는 것은 여성의 삶이 발화되고 소외된 존재에서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표현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여성의 연대의식과 체험이 공유되고 주체적인 여성성을 모색할 수 있는 출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외형적으로 여성의 자발적인 참여에도 불구하고 ‘수기’에 드러난 여성의 자기서사는 일정부분은 여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이는 여성잡지라는 매체적 특성과 관련이 있으며, 편집자의 편집의도에 따라

* 숙명여대 인문학부 국어국문학전공 강사

‘수기’의 주제 선택과 내용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성 필자는 여성의 체험 서술과 편집자의 의도 사이에 동의와 저항이라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에 대응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女苑』에 실린 ‘수기’에 나타난 여성의 경험들이 어떻게 자기 서사화 되고, 여성의 자기서사와 지배이데올로기의 관련성 등을 통해 ‘수기’의 서사적 특성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다.

핵심어 : 여성의 자기서사, 고백, 공감, 소통, 여성의 연대의식

1. 들어가는 말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시기는 전쟁의 체험과 그로 인한 가족의 해체, 전통적 가치관의 재편성이 요구되고, 전후 국가 재건의 기치아래 산업화, 근대화가 동시에 추진되는 역사적 격동기였다고 할 수 있다.¹⁾ 이 시기에 여성은 전쟁 중에 잃은 가족에 대한 슬픔과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남겨진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의 역할을 떠안게 된다.²⁾ 여성이 수행하게 되는 가장의 역할은 가족의 생계를 유지함은 물론 부재한 남성의 역할을 대신해야 하는 이중적인 것이었다. 전후 여성은 자의든 타의든 가족을 대표하여 가정과

1) 1950년대가 ‘산업화 없는 근대화’ 시기라면 1960년대는 국가 주도의 ‘산업화’가 활발히 추진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근대화·산업화는 1960~70년대 걸쳐 진행되었는데, 이 글에서는 1960년대를 산업화의 태동기이자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전 영역에서 이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는 전환기적 특성에 주목하고자 한다.

2) 1950년대 전후소설에 등장하는 여성인물 중에 대다수 미망인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여성의 경우, 가족의 생존과 부재한 남편, 혹은 아버지의 빈자리가 드러나지 않도록 애쓰는 모습을 쉽게 발견하게 된다. 이러한 모습은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로부터 여전히 여성의 삶이 통제되고 자유롭지 못함을 반영한다. 박경리의 자전적 초기 단편소설 속에 등장하는 ‘진영’을 비롯한 여주인공의 모습은 당시의 현실과 닮아있다.

사회에서 전면에 나서야 했으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동집약적 산업에 투입되거나 행상이나 소규모 상업에 종사하게 되었다.

전후 일상의 회복이 여성들의 자기희생과 여성성의 포기를 담보한 것이었다면, 1960년대 산업화·근대화가 시작 된 시기³⁾에는 여성이 가정으로 돌아가고 남성 중심의 국가 재건 프로젝트가 가동됨으로써 여성의 역할은 가족 내적이고 사적인 영역의 것으로 축소되었다.⁴⁾ 이로써 가정 내에서 가족 구성원에게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을 여성이 지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게다가 여전히 생계를 위해 생산노동⁵⁾에 종사할 수밖에

3) 이 시기 한국은 경제적으로 고도성장과 도시화가 진행되었으며, 사회구조의 변화는 일상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이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경제의 급속한 성장이다.

국민 총생산(GNP) 및 산업별 연평균성장율(단위:%)

	전기	후기			
	1954~1961	1962~1966	1967~1971	1972~1976	1962~1976
국민총생산(GNP)	4.4	7.7	10.5	10.1	9.7
농림수산업	3.6	5.3	2.5	5.0	4.2
광공업	12.1	14.2	20.3	18.8	18.1
제조업	12.1	14.8	21.5	19.3	18.8
사회간접자본 및기타	3.8	8.4	12.3	7.8	9.7
사회간접자본	12.1	16.9	19.1	11.9	16.2

자료: 조순 『經濟成長 1953~1976』, 이해영·권태환 편 『한국사회-인구와 발전 제 1권, 인구경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구 및 발전 문제 연구소, 1978, 203쪽.

4) 여성의 성역할 변화는 국가 주도하에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남성을 공적 영역의 담당자로 여성은 사적영역의 담당자로 이분화 하였다. 그러나 빈민 여성은 가사 노동과 생계를 위한 경제 활동이 분리되지 않았고, 열악한 노동 환경과 사회적 밀시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들은 대부분 농촌으로부터 유입되었거나 도시 하층민으로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서 단순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었다.

5) 이 때 여성의 생산 활동 참여는 남성의 짐을 덜어주는 보조적인 역할에 지나지 않았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이나 자아실현의 의미는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女苑』의 기사 내용 중 여성의 직업이나 취업을 다룬 경우, 집안을 잘 꾸리는 것이 제1의 과제이고 직장생활은 한시적인 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에 없는 상황의 여성조차도 가정 내 감정노동, 전문적인 자녀교육자의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이렇게 여성의 역할이 생산노동과 가족 관리에 집중되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한 다양한 기제가 작동하게 되는데, 여성잡지⁶⁾의 등장과 역할은 이러한 맥락에서도 이해될 수 있다. 여성잡지는 여성독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잠재된 욕망과 이상을 겨냥하여 편집된다는 점에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여성잡지의 편집은 여성의 욕망을 대리하기도 하지만 외부적인 요구에 의해 조작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동시에 내포하기 때문이다.

1950~60년대 발간된 여성잡지 중 『여성계』(1952), 『여원』(1955), 『여성생활』(1959) 등이 대표적인데, 『여성계』의 경우 상업성에 치우친 면이 있고, 『여성생활』은 기혼 여성을 주 독자층으로 삼아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여원』은 다양한 여성상을 제시하는 한편 경제, 정치, 통일과 관련된 주제 등도 실어 지성을 가미한 여성지로서의 특색을 지니고 있었다. 이로써 여성 교양 잡지를 표방하는 『女苑』의 창간은 전쟁 이후 국가 재건의 공동 목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화시키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⁷⁾ 『女苑』은 여성의 교양을 함양시킨다는 명목 아래 여성 지식인의 글과 다양한 계층의 여성상을 제시하는 가운데 근대사회의 이상적 여성상을 만들어 나갔다. 이와 동시에 남성 지식인들의 칼럼과 좌담회, 앙케트 등은 이러한 사회적 합의에 힘을 실어주고 여성을

6) 여성지의 사회적 기능은 ‘근대여성지의 경우 계몽위주였음에 비해 현대여성지는 ① 평론의 기능 ② 생활정보의 기능 ③ 오락의 기능을 지니고 있으며, 가정에 매인 여성들을 사회와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지적처럼 여성지는 여성을 사회와 연결시켜 주는 통로이자, 여성의 다양한 이미지를 생산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고정기, 『여성지의 사회적 기능』, 『여성동아』, 1976. 2, 107~111쪽.

7) … <女苑>을 내놓게 됨은 모든 여성들의 지적 향상을 꾀함과 아울러 부드럽고 향기로운 정서를 부여 드리며, 새로운 시대사조를 소개 제공코자 하는 데에 그 미의(微意)가 있다.-창간사 『여성의 문화의식 향상을 위하여』, 김익달, 『女苑』 1955. 10.

의식화 하는 통로로 활용되기도 하였다. 『女苑』의 비중 있는 기사와 특집 기사나 주제 기사는 해당 분야 담당 기사보다 권위 있는 전문직 남성 필자가 도맡아 썼다. 여성 필자에 의한 기사도 있었지만 이들 여성 필자 또한 중심에 배치된 여성으로, 남성의 시각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당시 남성 필자로는 대학교수나, 전문직 종사자들과 같은 지식인들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들 필자의 논조는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시각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었다. 이들은 근대화 프로젝트의 이념을 충실히 이행했으며 현모양처이데올로기의 강요⁸⁾와 여성의 성역할을 고착화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남성 주도적 글쓰기는 여성의 삶과 여성적 글쓰기를 상대적으로 사적(私的)이고 저급(低級)한 것으로 주변화 시키는 부작용을 낳았다. 여성잡지임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주체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허락된 지면은 수기, 수필, 독자투고란, 문예란과 같은 제한된 영역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다른 기사들과 비교했을 때 전체 분량의 10% 미만을 차지하고 상대적으로 비중이 적었다. 이 중 여성의 현재적 삶을 들여다 볼 수 있고, 현실을 바탕으로 여성의 체험을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경우는 ‘수기(手記)’정도라고 할 수 있다.

사전적 의미로 ‘수기란 자기의 생활이나 체험을 직접 쓴 기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女苑』에 실린 ‘수기’는 당시 여성 자신의 생활이나

8) “전국 여자 중·고등학교 교장회의가 소집되었을 때 … 시대에 맞는 민주주의적 현모양처의 교육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었다. … 여성은 얌전하다는 천품을 상실하여 지나치게 활발하여지는 것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한병진, 『성교육의 실정과 개선의 길』, 『女苑』 1956. 11월호, 54~56쪽.

“여자교육의 목표를 한갓 현모양처에 한정한다는 것은 너무나 얌은 생각이라고 할는지 모른다. 그럼에도 현모양처라는 이념은 대학교육에 서 무시할 수 없는 기본 이념이다. … 건전한 사회는 언제나 건전한 가정을 토대로 삼는 것이요 건전한 가정은 언제나 현모양처에 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김두현, 『여자대학교육의 당면문제』, 『女苑』 1959. 11월호, 81쪽.

체험이 여성 자신의 목소리로 서사화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 논의의 중심은 여성의 체험이 어떻게 여성의 언어로 표현되고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로써 중심에서 비켜 서있던 여성의 삶이 발화되고, 여성들 사이에 공감의 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장이 마련되었고 할 수 있다.

박혜숙은 '이야기가 있고 화자가 있는 모든 문학 텍스트를 서사라고 한다면, 화자가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진술하는 텍스트를 '자기서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자기서사는 화자가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진술하며, 자신의 삶을 전체로서 회고하고 성찰하며, 그 의미를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 글쓰기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서사'는 단일한 장르개념이 아니며 다양한 장르를 포함한다.'⁹⁾라고 정의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성의 '수기'는 여성 자기서사의 대표적인 양식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수기'는 서사의 하위범주로 평가되어 왔으며, 본격적인 연구 대상으로 주목받기 시작 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다. 『女苑』에 실린 '수기'에 드러난 여성의 자기서사는 평범한 여성이 자신의 삶을 자발적으로 진술하게 고백하고, 독자들과 소통하는 가운데 자신을 확인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여성이 자신의 체험을 자기 서사화 한다는 것은 여성의 삶이 발화되고 소외된 존재에서 자기표현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는 여성의 연대의식과 체험의 공유되고 주체적인 여성성을 모색할 수 있는 출발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성의 주체적 인식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다양한 시도와 모색 속에 가능해질 수 있다.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수기는 서술의 특성상 개인의 내밀한 체험의 고백이라는 발화행위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아직 여성의 목소리를 갖지 못한 시대인 당시로써는 사회적 서술태도에 영향을 받게 되고,

9) 박혜숙, 『여성 자기서사체의 인식』, 한국여성문학학회 편, 『여성문학연구』 제8호, 2002.12. 10쪽.

사회적 요구에 따라 그 내용과 서술의 수준이 달라질 수 있었다.

여성잡지의 독자응모수기의 경우 매체적 특성상 여성독자의 체험담이 바탕이 되지만, 자유로운 체험담임에도 불구하고 편집자의 의도와 선택에 의해 일정 부분 조정되고 있어 사회적 담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한계를 노출하게 된다. 이는 ‘수기’의 주제와 편집의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응모 주제를 개인적 체험에 치중함으로써 여성의 체험을 사적인 영역에 머물거나 여성들의 문제로 제한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라는 이분법적인 사회구조 속에 여성의 위치를 고착화 하게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된다. 이 때 중요한 점은 ‘수기’의 서술이 체험자아와 서술자아가 일치 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아니라 분열된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서술 자아는 사회 규범적 영향 아래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목소리를 낸다면, 체험자아의 고백은 여성 자신의 목소리라 할 수 있다. 여성의 발화행위에 드러나는 체험자아와 서술자아 사이에서 드러난 균열은 근대화·산업화시기에 여성을 억압하는 이데올로기적 억압성의 폭로이자 여성의 주체적 인식이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서술 자아의 자기 체험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사회적 합의를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체험 자아의 고백은 여성의 자기서사가 이루어지는 출발점으로 볼 수 있다.

이 글은 여성의 자기서사를 여성잡지 『女苑』이 창간 된 1955년 10월 호부터 종간된 1970년 4월호까지 실린 ‘수기’에 나타난 서사의 양상을 통해 ‘수기’의 서사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토대로 1950년대 중·후반부터 1960년대에 이르는 산업화·근대화 과정에서 여성의 체험이 어떻게 서사화 되고, 사회적 합의에 통제되었으며, 당시 사회적 변동에 따른 이데올로기기의 변화와 수용의 영향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2. 고백¹⁰⁾과 공감의 서사

『女苑』의 ‘수기’에는 다양한 사람들의 체험이 진솔하게 서사화 되어 있다. 독자응모수기의 필자는 전쟁미망인, 교사, 가정주부, 누드모델, 방송인, 아나운서, 은행원, 대학생에 이르기까지 각계각층의 사람들로서, 제시된 주제에 따라 자신만의 체험을 글로 표현하고 있다. ‘수기’에는 이렇게 다른 계층의 사람들이 서로 다른 주제에 따라 자신의 체험담을 공개하고 있는데, 이때 그들의 서사는 고백과 공감을 통해 독자와 소통하게 된다. 필자와 독자의 공감은 동시대적인 삶을 토대로 하여 이루어지므로 시대적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1950년대 중후반을 거쳐 1960년에 이르는 시기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사회 전 영역에서 사회적 변동이 급작스럽게 이루어지고, 이렇게 격심한 사회변동 상황은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女苑』의 ‘수기’에는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여성들의 삶의 흔적들이 투영되어 있다. 이들 ‘수기’를 통해서 당시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현실적인 고통은 물론 억압적인 이데올로기로부터 여전히 강요되었던 타자화 된 삶의 궤적도 발견할 수 있다.

『女苑』은 1955년 10월에 창간되었지만 ‘수기’가 등장한 것은 1957년 6월호에 아그네스·데이비스·김의 ‘한국남자와 결혼한 미국여성의 장편수기’ 「나는 코리안의 아내」가 10회에 걸쳐 연재되면서 부터이다. 아

10) “페미니즘 문학비평가들은 여성의 글쓰기는 자신이 무엇인가에 하는 존재론적 질문이 아니라 남성지배의 사회에서 자신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억압받고 있는가에 대한 자의식에 기초하여 글을 쓴다고 설명한다. 때문에 고백적 성격을 띠는 여성적 글쓰기는 여성적 자아의 재발견이라는 내적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문학형식이 된다고 한다.” 김성례, 『여성의 자기 진술의 양식과 문체의 발전을 위하여』, 『또 하나의 문화』 제9호 1994, 이정희, 『여성의 고백담과 근대체험』, 『비교문화연구』 제5호, 경희대학교 부설 비교문화연구소, 2002. 105쪽. 재인용.

그네스·데이비스·김의 수기를 시작으로 사회저명 인사들의 연재 수기도 게재되지만, 이 글에서는 일반 여성들의 다양한 삶을 통해 드러난 여성의 체험과 여성적 글쓰기로써 ‘수기’의 자기서사를 살펴볼 것으로 독자응모수기를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독자응모수기는 여성잡지라는 매체적 특수성을 반영하게 되는데 『女苑』이 창간 이후 시대의 변화에 따라 잡지의 성격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것이다. 왜냐하면 산업화·근대화시기에 강조되던 사회적 요구와 1960년대 말 이후 경제 성장과 더불어 ‘소비주의’와 ‘상업주의’가 성행하게 되었을 때 상업성과 대중성이 결합되어 여성잡지의 성격이 급격히 변화했기 때문이다.¹¹⁾ 그러므로 ‘수기’에 나타난 여성들의 체험의 고백도 이러한 사회변동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외부적 상황의 변화가 여성잡지의 ‘수기’에 여성의 자기서사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검토 할 것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기’의 주제와 서사도 달라지는데 이를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시스템은 <投稿規定> 내용의 변화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手記選後感>에는 어떤 기준으로 그 달의 우수작을 골랐는지 밝히고 있어, 편집자의 편집 의도에 따라 선별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제를 감안한다하더라도 중심부에서 소외되었던 일반 여성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자기서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고무적이다.

『女苑』에는 1957년 7월호 ‘젊은 미망인의 고민’ 『나의 길을 찾고저』라는 수기를 시작으로 독자응모수기¹²⁾ <생활의 주변>¹³⁾란이 신설된다.

11) “1960년대 중후반에 들어서면서 매스 미디어는 급속한 상업화의 길을 걸었으며, 센세이셔널리즘과 쾌락주의, 소비주의에 치중하는 등 보도경향에 있어서 큰 후퇴가 있었다.” (추광영, 『제8장 1960~70년대의 한국의 사회변동과 매스 미디어』,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6. 256쪽.

12) <應募規定> 別項에 提示한 題目의 內容으로서 二百字 原稿紙二十枚以內, 每月 十五日以內 必着토록, 掲載分에 所定稿料支拂, 住所姓名을 明記할 것. (誌上

<생활의 주변>에 응모한 수기는 투병기, 전쟁미망인의 실상, 직장 생활, 생활 속에서의 애환, 외국여성의 하루, 약혼, 결혼, 신혼여행, 교원 수기, 어려운 살림을 극복한 체험, 시어머니와 불화·해결, 사랑의 삼각 관계, 남편의 외도, 우정, 부업경험 등등 당시 많은 사람들이 겪었을 법한 일상적인 일들이 재제적으로 선택되었다. 그 달마다 제시되는 제목은 당시 관심을 끌 수 있는 것으로 문제적인 상황과 극복 체험을 반영한 것이었다.¹⁴⁾

이들 수기의 서사는 크게 자신이 처한 고난을 고백하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 새 출발을 선언하는 고난 극복형과 자신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더욱 정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각오형, 사회적 맥락에서 교양함양을 목적으로 한 계몽형 수기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수기는 잡지사측에서 독자수기응모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내용과 서술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다. 처음에는 포괄적으로 독자의 생생한 체험을 주제에 따라 받겠다고 했던 것을, <投稿規定>에 요지를 덧붙여 ‘수기’답론의 의미를 구체화 하게 된다.¹⁵⁾ 이러한 투고규정은 점

匿名可), 『女苑』, 1957. 7. 109쪽.

13) 독자응모 수기 「생활의 주변」란을 신설하면서 ‘생활의 주변에서 겪는 것, 느끼는 것을 전국 여성에게 이야기하여 기쁨과 슬픔과 괴로움을 공감(共感), 이해(理解)하고 거기대한 적극적인 반향(反響)이 나오기를 바란다’는 독자응모수기의 목적을 밝히고 있다.

14) …이 란(欄)은 계속적으로 두고 그때 그때 문제를 달리해서 독자들의 응모작품중 가장 우수한것을 이(二)편씩 골라신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반영된 문제를 중심으로 독자들의 활발한 의견교환을 더욱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들에게 당면된 문제를 서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기 위해서도 많은 투고(投稿)가 있기를 바랍니다. <應募讀者手記(生活의 周邊) 出題>, 『女苑』, 1957. 7.

15) ‘우리 생활주변에 허다하게 일어나는 일을 정리하여 기록하는 것은 자신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읽는 사람들도 또 하나 생생한 인생의 경험을 얻어 보다나은 생활을 지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독자 여러분께서 많이 쓰셔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應募規定>, 『女苑』 1957. 11.

차 내용의 요지를 한정함으로써 ‘수기’의 범위와 내용을 좁혀나가고 있다. 예를 들어 제목이 ‘媿母와의 不和와 그 解決’이라면 ‘-要旨, 시어머니와의 불화에서 느끼고 체험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 그리고 인 불화를 어떻게 해소시키고 평화로운 가정을 이루었는가 자세하게 적어 보내 주십시오.16)’라고 수기에 담아야 할 글의 내용과 구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여기에서 편집자의 강조점은 밑줄 친 사항에 집중되고 있다. 여성의 체험이 여성 자신의 주체성을 회복하거나 어떤 고통 속에서 상처받고 갈등을 경험했는가 보다는 ‘불화의 해소’에 초점이 맞추어짐으로써 독자에게 갈등 해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되고, 결국 갈등이 해소되었을 때 그달의 ‘수기’로 선정될 수 있는 것이다. 이로써 일반인의 경험은 개별적인 체험인 동시에 일반화되는 현상을 낳게 된다. 이는 독자의 참여를 훨씬 용이하게 하고, 편집자의 의도를 직접적으로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소통의 경로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기’를 읽는 독자는 서술자의 체험담을 읽으면서 필자에게 자신을 투사하고 필자가 문제를 해결했듯이 자신도 해결의 실마리와 기대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각자 처한 상황과 처지가 달라 구체적인 해결책으로써는 한계를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가 서술하는 체험 그 자체는 당시 여성의 억압적인 삶과 기제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수기’의 서사는 여성 서술자가 고통, 고난을 극복하고 어려움이 해소되는 과정을 독자에게 발화하고 그것이 청취되는 구조이다. 이때 서술자와 독자가 상호치유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고백과 공감의 서사 양식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술자는 타자화 되고 비인격화되었던 자아의 고립감으로부터 벗어나 관계성을 회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6) 『女苑』 1962. 7. 145쪽

독자응모수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젊은 미망인의 고민』에서 26세의 젊은 미망인인 ‘나’는 남편과 동일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지난날의 나는 완전히 나를 잃고 있었다. 나라는 하나의 독립된 존재를 부정하고 남편의 세계에 동화된 나만을 가지려고 하여 왔던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주체성을 잃은 삶을 나는 오늘까지 가져온 셈이다.’라는 고백을 통해 그녀는 자신의 삶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드러낸다. 그리고 자신에게 닥친 고난은 소녀적 낭만을 벗고 ‘여유있는 사고력’을 가져다주는 기회였음을 깨닫고 침체된 삶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스스로를 격려하고 있다. 자신이 성숙한 인간으로 일상을 회복하는 것은 남편이 죽은 후 따라 죽겠다고 눈물로 세월을 보내다가 일년도 안되어 ‘스캔달’을 일으키는 책임 없는 행동을 하는 여성들보다 의미 있는 선택임을 강조하고 있다.

① 나는 언제이고 나의 삶을 충실하게 영위하겠다. 앞으로의 나는 현실적인 타산을 가질 줄 아는 좀 현명한 여인이 될 것이다. 또 그렇게 될 것을 자신에 다지면서 살아 나가겠다.¹⁷⁾

이와 같은 젊은 미망인의 자기 성찰은 전후 남겨진 많은 미망인에게 자신을 되돌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을 것이다. 남편의 부재는 전통적으로 유교적 윤리에 입각하여 여성의 삶을 타자화 하고 실패한 삶을 예견하는 단서가 되었지만, 더 이상 여성의 예측적인 삶을 거부하는 미망인의 각성은 더 이상 불행한 삶을 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전후 미망인의 자기서사는 한탄조의 서사적 특징을 보이지만 이 젊은 미망인의 수기에서 볼 수 있듯이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않겠다는 의지적 서술 태도는 서서히 과거의 굴레로부터 벗어나려는 여성의 각성과

17) 전미연, <젊은 미망인의 고민> 『나의 길을 찾고저』, 『女苑』 1957. 7. 111쪽.

현실인식을 반증하는 예이다. 이와 유사한 서술 태도를 보이는 ‘혼기를 잃은 여성의 심경’을 주제한 수기를 들 수 있다.

② 적어도 자기반성을 할 줄 알고 인생이 무엇인가를 한번이라도 생각해본 적이 있는 여성이라면 현 ‘스럼프’를 어떻게 개척해나갈 수 있을 것인가 같은 흰하리라 생각합니다.… 높이 두었던 이상(理想)의 각도를 한껏 낮추어 부족한 현실과 타협할 수 있는 그 지점에 나를 놓이게 하렵니다.¹⁸⁾

①, ②에서처럼 스스로에게 극복의지를 독려하는 동시에 유사한 상황에 놓여 있는 독자들에게도 갈등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서술자의 태도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문제를 인식의 전환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볼 수 있다.¹⁹⁾

전쟁으로 인해 일상이 파괴되고 흩어졌던 가족이 다시 모였지만 달라진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의 문제는 혼자서 쉽게 풀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이 때 역사의 공동 체험자들의 체험담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의 아픔을 위로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지금 자신에게 닥친 현실이 ‘나’만 겪는 일이 아니라는 위로는 안도와 극복의지로 이어지고 있다.

1950년대 중·후반 『女苑』 ‘수기’의 주제는 ‘전쟁미망인의 실상, 혼기를 놓친 여성의 심경, 아버지의 축첩과 딸의 고민, 생활 속의 여인 애환,

18) 임은경, 『「선」뵈기에 지친 「나」』, 『女苑』 1957. 8. 107쪽.

19) 「나는 일요일을 이렇게 보낸다」의 주부 독자도 남편이 일요일마다 취미생활에 빠져 아내를 혼자 버려두었을 때, 일요일을 두려워하기까지 한다. 남편으로 인한 고독감과 외로움을 결국 부부관계의 회복을 통해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의 취미를 인정하고 불가항력적인 것으로 수용한다. 그리고 인식의 전환으로 ‘내적인 충실을 위하여 사색과 독서의 시간을 보내고 평정된 마음을 갖게 된다.

투병기' 등 지난날의 고통을 벗어나고 새 출발을 종용하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다. 과거를 청산하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는 의도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고백과 공감의 서사의 주축을 이루는 유형의 '수기'에는 여성의 자기서사가 고백과 자기 확인의 서사구조를 통해 주체적 인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고난 극복형 수기는 마무리를 할 때, 독자의 이해를 구하거나 동의를 유도하는 동시에 다짐의 서술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이 시기에 발표된 고난 극복형 '수기'의 서사구조는 '고난에 직면→현실적, 정신적 갈등의 고조→인식의 전환을 통한 회복 의지발견→새 출발의 다짐' 순으로 서술되고 있다.

편집자의 의도가 '새 출발의 다짐'에 있다 하더라도 여성이 직면한 '고난' 그 자체가 보여주는 여성의 체험은 현실의 반영이라 할 수 있다. 여성 서술자가 자기를 확인하고 의지를 다지는 계기는 결국 과거의 이야기를 털어놓음으로써 가능해 지고 있는 것이다. 이 때 이들의 발화행위는 억눌렀던 자기 자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방을 선언하는 의미를 내포하게 된다. 여성 서술자들이 겪었던 고난이 여성 자신에게 원인이 없더라도, 이들은 고난(또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인식의 차원에서 해소한다. 그러므로 갈등의 원인이 완전히 해결되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위로하고, 수기를 읽는 독자들과 소통하게 된다. 이때 발생하는 여성들 사이의 연대의식은 여성의 주체적 인식이 자각되는 토대가 될 수 있다.

3. 사회적 합의에 대한 동의와 저항의 서사

사적 영역에서 여성의 주체적 자기 인식과 달리 직업여성의 경우 사회구성원으로서 여성의 자기 인식은 여성 스스로의 각성과 공적 영역에

서 활동하는 여성을 바라보는 외부적 시선에 영향 받게 된다.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확대되고 있었지만 아직 사회구성원으로서 주체적인 위치를 확보하지 못한 직업여성들의 수기에는 직업적 특성이나 여성의 사회 활동 중에 벌어지는 어려움의 토로과 함께 직업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인한 오해와 편견을 극복하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들 직업여성의 ‘수기’에는 여성의 직업의식의 부재와 성역할의 고착화를 강제하는 억압적 세력에 대한 저항의 서사가 담겨있다. 이들의 서사에는 직업여성으로서 단호함과 자부심이 묻어나는데, 다음은 그러한 직업여성의 의지가 담긴 수기의 일부분이다.

① 사회에 준비하게 깔려있는 협작도 사기도 시기도 증오도 이러한 비극의 요소들이 동심세계에서는 열신도 못하는 것입니다.²⁰⁾

② 얘기가 옆길로 흘렀읍니다만 좀더 간호원에 대한 일반의 인식을 새로해달라는 부탁을 이 기회를 빌려 드리고 싶습니다.²¹⁾

③ 끝으로 우리들도 백화점에서 한발만 나오면 사회의 누구와도 같은 성실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사회일반에서 인식해 주었으면 하고 바라고 싶습니다.²²⁾

④ 직업여성이라는 네티를 붙여서 무슨 궁상바가지처럼 백안시(白眼視) 한다는 자체가 이나라의 문화의 후진성(後進性)을 스스로 폭로하고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나라보다 부유한 미국이나 독일 불란서 같은 나라에서도 남자가 있고 남자들이 일하는 곳이라면 어디를 막론하고 여자들

20) 김인숙(아나운서), 『어린이 시간이면 동심으로 돌아간다』, 『女苑』 1958. 2. 60쪽.

21) 장숙진(간호원), 『열정과 취미를 구하는 직업』, 위의 책, 62~63쪽.

22) 신숙경(백화점원), 『피곤을 풀 겨를도 없는 생활』, 위의 책, 67쪽. -백화점원에 대한 비판 기사에 대한 반론의 제기하며 백화점원의 애환을 적고 있다.

이 끼어 있으며 노소(老少)를 가릴 것 없이 백발이 성성한 할머니들도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다.²³⁾

⑤ 내가 쓴 기사를 모든 사람들이 읽는다고 생각할 때 난 노력한 보람을 느끼는 것이야.²⁴⁾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女苑』의 수기는 ‘직업여성의 기쁨과 슬픔, 나의 청춘, 교원 수기, 어려운 살림을 극복한 체험’ 등 여성의 사회 진출과 관련된 주제의 서사가 부쩍 늘어나고 있는데, 같은 주제의 ‘수기’라 하더라도 시대의 흐름에 따라 서사의 초점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60년대 초반 직업여성의 수기는 직장에서의 애환을 그리더라도 이전과 달리 개인적 차원에서 느끼는 희열, 보람과 함께 사회인으로서의 충고도 잊지 않고 있다. 이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고 있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반감은 『女苑』의 특집 기사나 칼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성에게 묻는 앙케트 조사나, 남성에게 묻는 앙케트 조사, 좌담회 등을 통해서 여성의 참된 가치는 가정 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직업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와 신 현모양처에 대한 긍정으로 이분화 하여 사회적 담론으로 형성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회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직업여성의 수기에 나타난 사회적 활동에 대한 독려는 여성 스스로의 자각을 통한 각성으로 여성 정체성 형성의 또 다른 징표로 해석할 수 있다. 사회적 담론으로 여성의 사회 진출에 대한 반감은 여성이 여성으로서 기본을 갖춘 이후의

23) 박신명 「自我를 돌아다보라」, 위의 책, 226쪽.

24) 박동은(기자), 「올챙이 여기자의 보람」, 『女苑』, 1961. 7, 221쪽.

선택 사항이고, 그것도 결혼 전까지로 제한함으로써 여성의 사회 활동이 마치 본분을 망각한 행위처럼 묘사되곤 하였다. 이러한 현실과 여성의 체험담을 읽고 있는 여성 독자는 사회활동에 대한 동경과 부담감을 동시에 느낄 수밖에 없었다.

이와 달리 한 가지 특기할 만한 사항은 4·19혁명이후 사회변동과 관련한 사회적 이데올로기²⁵⁾가 여성의 ‘수기’에 노골적으로 드러난다는 점이다. 이는 여성잡지를 포함한 매스 미디어가 국가 정책수행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여성이 사회적 변화와 이데올로기에 직접 영향 받고 있었으며 동시에, 여성의 관심이 공적 영역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① 나는 요즈음 절실히 느꼈어 우리나라도 이젠 다른 나라 못지않게 질서가 잡혀가고 있으니 자라나는 후손들이 얼마나 보람있게 생을 보낼 수 있을까 하고 말야!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여성이 어머니들이 여기에 누구보다도 먼저 보조를 맞추어 주어야 될 것같아—²⁶⁾

② 이 백화점이야말로 무슨 만물상의 거울처럼 금방 세태를 반영시켜준다. 요새는 외래품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통 매상이 오르지 않아. 그렇지만 우선 나라의 경제가 바로잡혀야하지 않겠어.²⁷⁾

25) “매스미디어의 ‘국가발전’의 동원’은 주로 정부의 정책수행과 관련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매스미디어는 인구증가 억제제를 위한 가족계획사업에 대한 대국민 선전·계몽의 수단으로 동원되어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을 고조시키는 동시에 가족계획이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라는 인식을 보급시켰다.” 김광웅, 박용치, “人口問題의 政治, 行政의 意味”, 이해영·권태환 편 『한국사회-인구와 발전 제4권, 인구경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구 및 발전 문제 연구소, 1978, 1241쪽.

26) 강영숙 (아나운서), 『직장과 가정의사이』, 위의 책, 195쪽. ; 신건. “1960~7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와 여성담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1.

27) 한옥자 (백화점원), 『백화점은 만물상의 거울』, 위의 책, 208쪽.

①, ②에서 알 수 있듯이 경제 재건이라는 공동의 목표 아래 효율적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근대화, 산업화, 반공이데올로기는 국가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일사분란하게 사회 구성원들을 통제하게 되었다.

전후 1960년대 경제 부흥기를 거치는 동안 여성의 역할은 저임금 산업 역군으로서 경제 발전에 기여²⁸⁾하는 동시에, 가정 내적으로는 남편이 바깥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안락한 가정을 꾸려가야 할 내조자의 역할을 맡게 된다. 여기에서 여성이 가정 내에서 가족을 보살피고, 근대화 사회에서 요구하는 가정으로 꾸러가기 위해 강조된 것이 스위트 홈 이데올로기와 신 현모양처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이에 관해서는 여성지 내용 구성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여성지 구성의 많은 부분이 근대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의식주 개선과 관련된 기사로 이루어졌다. 이와 관련하여 사회적 이데올로기는 권위 있는 필자의 기획 기사를 통해 교육되었고, 일반 독자들의 응모 ‘수기’는 실생활 속에서 실천되는 사회적 이데올로기를 재현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사회 변화에 따라 『女苑』이 수행해 온 역할을 짐작할 수 있는 예로 창간 6주년 기념 독자응모수기 ‘女苑과 함께 한 나의 生活’을 보면 알 수 있다. 당선작과 가작을 선정했는데 당선작인 「幸福과 보람과 希望이 있는」²⁹⁾의 제목만으로도 독자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이들 수기는 공통적으로 의식주와 관련된 기사에 대한 소감을 실생활의

28) 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공업화는 경공업 중심의 노동집약적인 수출산업이 주도하였으며, 이 발전에는 여성노동력의 풍부한 공급이라는 변수가 크게 작용하였다. 그러나 제조업 상용근로자 중 여성의 임금은 남성의 39.0%-45.9%에 머물렀다. 이 옥지,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한울아카데미, 2001, 92쪽.

29) ...인간이란 자기 생활에 의미를 가진다면 그 삶은 가치가 있으리라. 그러니만큼 사람은 배워서 많이 알아야 한다고 뼈저리게 느낀다. 더구나 의욕을 잃고 권태에 빠져 피로한 농촌의 딸들이 더 알아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우리 다같이 女苑학 교에 들기로 권고하고 싶다... 진선자, 「행복과 보람과 희망이 있는」, 『女苑』 1961. 10. 141쪽.

변화와 연결시켜 적고 있다. 하루일과 마치고 『女苑』을 집어 들고 삶의 여유를 만끽하는 주부들의 이야기는 1960년대 스위트 홈 이데올로기의 현재화라 할 수 있다. 이로써 『女苑』을 읽는 독자는 『女苑』에서 제시하는 이상적 여성상에 길들여지게 된다.

외부로부터 강요된 이상적 여성상에 대해 수기의 서술자들은 ‘동의와 저항’이라는 상반된 서술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동의’의 서사는 가정이데올로기의 영향 아래 여성의 성역할을 가정 내적인 것으로 수용한 입장의 서술자들에 의해서 서사화 된 것이다. 이들의 수기에는 여성 개인의 개별서사라기 보다는 가족 내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는가 여부를 스스로 확인하는 가운데 조율된 가족 공동서사라 할 수 있다. 응모 주제별로 본다면 ‘나의 행복론, 어려운 살림을 극복한 체험, 媿母와의不和와 그 解決, 우리 집 가계부, 나의 일기초, 나의 부업생활, 나의 시집살이, 가시밭을 헤친 여사장의 의자, 우리 집 살림 공개, 새 농민상 수상자 수기’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러한 응모 주제의 수기에는 사회적 요구에 성공적으로 부응한 경험담이 서술됨으로써 서술자와 독자 모두 사회적 합의에 동의하는 결과를 낳게 된다.

반면 앞서 밝힌 직업여성의 수기에서 보았듯이 사회적 합의에 ‘저항’하는 서사는 여성이 자신을 주체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서술자의 서사라고 할 수 있다. ‘저항’의 서사를 견지하는 수기에는 여성 서술자가 기존의 규범적 서술자아와 체험자아의 의식의 차이에서 분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가정생활과 사회생활을 병행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에 놓인 여성들이 어머니로서, 아내로서, 며느리로서 가정 내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을 때 사회생활도 의미 있다는 내용은 여성의 분열적 상태를 보여준다.

① 그러나 일단 가정에 들어가면 아내로서 또한 평범한 주부로서 그이

와 아이들에게 기쁨을 주고 피로한 나의 심신을 아무 생각 없이 내맡기는 데 실패하고 싶지 않다. 나의 욕심은 사업의 능수이면서 가정의 결함 없는 아내가 되고싶은 것이다. …(중략)… 그동안 겪은 경험을 닦아 빛을 내고 일하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내 인생의 의미이다.³⁰⁾

② -가정 속에 자기 세계를 가진 자가 가장 행복하다고 역시 퀘테는 말하고 있는데 난 가정속에 내 세계를 갖지 못하고 밖에다 사업체를 지어놓고 동분서주하니 역시 여성으로선 행복의 량이 오십퍼센트는 마이너스된 현상이 아닐까요?³¹⁾

이들이 보이는 분열과 혼란은 여성의 자기서사가 시작되는 지점이라 할 수 있는데, 분열과 혼란은 갈등을 의미하며 지금까지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이념에 대한 저항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들의 ‘저항’의 서사가 갈등의 해소와 안정화를 이끌어낸 것은 아니나, 균열 자체가 여성의 주체성 모색의 첫 출발이라 할 수 있다. 『女苑』을 통해 강화되고 있는 이상적 여성상은 여성의 자발적인 구축이 아닌 허구적 존재로 강요된 여성상이라고 할 수 있다.

『女苑』을 통해 구현되는 이상적 여성은 현모양처로서 생활은 근대화되고, 의식은 전통적인 유교적 윤리를 충실히 따르는 모습을 지향한다. 근대화란 개인의 자아 각성과 자유를 통한 민주화를 의미한다고 할 때, 여성에게 요구되는 근대화는 전근대적 의식과 근대적 생활양식의 추구라는 이중적인 모습을 띠게 된다. 이때 여성의 삶은 분열적인 양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30) 오향, 『시작은 보파리장사』, 『女苑』 1964. 10. 119쪽.

31) 전옥숙, 『文學에의 꿈이 바뀐 영화제작』, 위의 책, 124쪽.

4. 선택과 배제의 이분법적 서사 구조

1960년대 한국의 근대화 과정은 국민화 프로젝트라는 극한적인 형식으로 진행된 총동원체제와 유사성을 지닌다. 이 때 근대화는 단일한 국민적 주체, 국가에 순종적인 집단적 주체를 생산하는 작업과 병행되어야 했으며, 프로젝트에서 여성은 민족 정체성을 보존하고 변형시키는 주체로서 전통적인 여성상과 근대적인 여성상이 결합된 형태³²⁾로 나타났다.

여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는 한편으로 근대화 사회의 이상적 여성상을 강화하고, 다른 한편으로 문제적 여성을 비판함으로써 시대에 부응하는 여성 담론을 구성해낸다. 신 현모양처 이데올로기에 부합되는 여성은 집안 경제를 잘 꾸려 살림을 늘리고, 아이들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남편의 사회활동에 내조하는 여성으로 그려지고 있다. 실제 이와 관련한 수기 주제를 통해 여성에 대한 이중적 태도와 사회적 요구를 짐작할 수 있다.

‘어머니의 초상, 나의 생활에 대한 반성, 나의 초산기, 나의 부업생활, 나의 시집살이³³⁾, 우리집 살림 공개’ 등등을 주제로 한 수기에는 당시의 여성에 대한 전통적인 역할의 수호자로서 사회적 요구가 반영되어 있다. 이들 ‘수기’에 드러난 서사는 여성 자신의 자기서사와 가족 공동서사가 혼합된 형태로 발화되고 있다.

32) 신진, 『1960~7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와 여성담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1. 11~17쪽 참조.

33) 手記選後感에는 … 모순된 생활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성실한 의론(議論)내지 투쟁같은 것은 한결같이 찾아볼 수 없었고, 모든 것이 ‘세월이 흘러’ 원만한 생활을 이룩하신 듯 했습니다. … 다행한 현상은 젊은 세대로 내려올수록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명랑하고 건전하게 유지되어 가는 점입니다. … 이라고 시집살이의 변화를 세대별로 믿고 있다. 『女苑』 1963. 6. 251쪽.

① 어떻게 하면 구차한 생활을 좀 낫게 해 볼까 궁리한 끝에 생각해 낸 오리기르기 그리하여 이젠 우리집 재력의 원천이 되었다.³⁴⁾

② 삼년 전만 해도, 봄이면 끼니를 잊지 못하고 나물죽을 쏘다 썩을 캐러 간다는 등 괴롭고 슬픈 일이 많았다. 그러나 이젠 그와 같은 공상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다. 그리고 여름이면 이집 저집 시원한 대청을 찾아 남의 허물이나 하고 겨울이면 화투나 노름으로 세월을 보내던 사람들이 이젠 모두 그와 같은 악습을 내던지고, 춘하추동 틈만 있으면, 짚 땅기에 열중한다.³⁵⁾

③ 액귀를 끌고 시집왔다는 迷信을 믿는 시어머님에게 나는 주름이 잡힐 때까지 忍從, 그것만으로 살아왔다.³⁶⁾

1960년대는 시대적으로 근대화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여성들에게는 전근대적인 삶의 방식이 여전히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다. 이 시기 ‘수기’에 드러나는 공통점은 특정 분야와 계층을 막론하고 전환기의 혼재 양상이 각성과 계몽의 서술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시 여성에 대한 사회적 담론은 농촌 여성들에게는 계몽의 서사를 통해 근대화의 역군이 되라 하고, 도시의 여성들에게는 전통적인 여성성을 회복하라고 이중적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여성의 여성성을 가족 관계 속에서 규정하는 것과 달리 여성의 여성성을 남녀 관계 속에서 찾는 주제가 등장하기 시작한다.

1960년대 중반이후에는 남녀의 애정관계에 관한 수기가 부쩍 많아지는데 재제의 특성상 서사가 이전과는 달리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하게

34) 박점남, 「뒤뚱 뒤통 오리 걸음에 喜悲신고」, 『女苑』 1963. 4. 266쪽.

35) 이민영, 「보릿짚 속에 묻힌 꿈」, 위의 책, 270쪽.

36) 김혜옥, 「忍從으로 겪은 厄뎌살이」, 『女苑』 1963. 6. 244쪽.

사건 중심으로 서술되고 있다. 사건 중심의 서술방법은 다른 주제의 ‘수기’와 달리 서술이 긴박하고 서사성이 강화되는 현상을 보인다. 이 때 서술은 공감대의 형성과 체험의 공유에 있다기보다는 개인의 내밀한 삶을 보여주고 되돌아보고, 지난날에 대한 회오와 반성을 통해 독자들에게 보내는 당부의 말에 집중되고 있다. 남녀 애정 관련 체험담은 처음엔 낭만적 사랑의 추억과 고백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이, 성 담론과 결합되면서 ‘남편의 외도, 삼각관계, 처녀성을 잃은 기록³⁷⁾, 사랑의 실패담’ 등등 다소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포함하게 되면서 ‘수기’의 서술은 극적이고 흥미로워진다. 이때 서술의 선정성은 매스미디어의 정체성 변화와 궤를 같이 하는데, 상업주의 매스미디어는 미디어 본연의 공적 임무는 도외시하고 기업적 이윤추구를 위한 발행부수 경쟁에 뛰어들게 됨으로써 흥미본위의 기사가 넘쳐나게 된다.³⁸⁾ 『女苑』도 이러한 미디어의 정체성 변화와 무관할 수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서사의 선정성에도 불구하고 일반 여성의 성적 체험이 발화될 수 있었다는 것은 ‘성’에 대한 의식 변화를 나타낸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에 관한 수기와 같은 몇몇의 수기에는 여전히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지배 받고 있는 여성의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다. 지방과 서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예로 선정했다는 <選後感>에는 다른 주제에 비해 응모 편수가 적은 이유로 ‘개인의 내밀한 생활을 들추어 보인다는’ 어려움 때문인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예문에도 보이듯이 아들을 낳으면서 남편의 외도가 끝날 것을 기대하는 모습과 여성으로서 자각할 수 있는 기회였

37) ㅁㅁㅁ-처녀성을 잃게 된 상대방 남성과의 관계와 그 당시의 심경 동기 이유 등에 대해서 ㅁㅁㅁ이 읽어 도움이 되고 참고되게 써주시는 동시에 정조가 그렇게 중요한가 아닌가에 대한 솔직한 의견도 들려주십시오. (但 紙上엔 匿名)- 투고요령이 다음과 같이 상세하게 밝혀져 있는데, 이는 당시 성 담론 형성과 연결될 수 있다. 위의 책, 1963. 5. 79쪽.

38) 추광영, 앞의 글, 256~257쪽 참조.

다는 아내의 고백은 부부관계에서 여전히 수동적인 여성의 모습을 보여 준다.

① 봄바람이 풀어지듯이 그이의 마음도 풀어져 내걸로 돌아오리라 고... 아들이란 것을 확인 하신 시아버님은 조용히 내 방문을 닫고 나가시 며 밤 하늘아래 힘껏 소리치셨다. “네 이놈 바우야.” 마치 그이가 자기 앞 에 있는 듯이...³⁹⁾

② 나는 다시 한번 이렇게 일찍 마음을 돌리고 돌아 와 준 그에게 감사를 느낍니다. ... 분명히 그이의 외도는 오히려 나에게 여성으로서 주부로서의 생활을 일깨워 주었습니다.⁴⁰⁾

부부간에 발생 한 애정의 갈등과 달리 남녀 애정문제에 관한 ‘수기’는 당시 성 담론, 연애 담론의 현실적 재현체이고, 상업화 되고 있는 여성 지의 성격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며, 수기의 서사가 대중화 되는 전이 양상을 볼 수 있다. 이는 서술자 중심의 서술이 독자 즉, 수용자의 흥미와 관심을 환기시키는 서사로 변모되는 정황을 포착할 수 있다. 동시에 남녀 애정문제에 관한 ‘수기’에는 근대적 지표로써 여성의 ‘몸’이 표면으로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전의 성 담론이 정신적인 고매함에 집중하고 가부장적 이데올로기에 이바지하고 있었다면, 변화의 양상은 여성의 육체적 경험을 통해 성 담론, 연애 담론을 구성해 나간다는 점이다. 그러나 여성 서술자가 보이는 태도는 행위에 대한 후회와 자책의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어 아직은 순결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인식의 수준을 발견할 수 있다.

39) 박정인, 『가시는듯 돌아오소서』, 『女苑』 1963. 7. 271쪽.

40) 하유빈, 『사랑의 冬眠 二個月』, 위의 책, 275쪽.

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참고 견디어 나가는 섹스를 유독 혼자만이 부산스럽게 체험한 그 짧은 뒷맛이 원목을 내려누르고 있고 그래서 나는 정말 bad seed인가 하는 생각이 굳어 저서 밤낮을 우울한 공기 속에 젖어 있어야 한다. …형벌의 채찍을 오늘도 나는 힘껏 내려치고 있는 것이다.⁴¹⁾

② 그러나 내가 섹스에 눈을 떴을 때 내 마음을 내려뒀은 것은 끝없는 절망감, 무서운, 후회, 그리고 세상에 다시 더 없을 바보라는 가책뿐이었다.⁴²⁾

③ 어느날인데 내가 저지른 비밀이 들어나지 않을까? 그때 남편이 실패할 모습을 생각하면 나는 금새 바늘에라도 찢린 듯이 누웠던 자리에서 발딱 일어나곤 한다.⁴³⁾

남녀 애정 문제관련 수기는 서술자의 태도와 달리 서술은 노골적으로 묘사되고 있어 통속 소설의 일부분을 보는 듯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는 여성잡지의 상업성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⁴⁴⁾ ‘처녀성을 잃은 체험수기’에 40편의 독자 응모가 있었으며, 자신의 과오를 고백을 통해 행동에 책임지고 새롭게 출발하라는 것이 <選後感>의 요지이다. 특이하게도 독자 수기를 읽고 박신명(동덕여대교수)의 감상평이 실렸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평가 한 후 순결을

41) 문설령, 『입술로 배우려던 사랑』, 『女苑』 1963. 8. 71쪽.

42) 한규옥, 『진홍발을 굴러 간다』, 위의 책, 1963. 8. 74쪽.

43) 김철숙, 『형클어진 氏族의 늪에서』, 위의 책, 1963. 8. 79쪽.

44) 『女苑』 창간호(1955. 10)의 내용 분포는 여성·교양(27.6%), 광고(1.1%)였던 것이 1960년 10월호는 여성·교양(20.7%), 광고(8.3%), 1971년 4월 『신여원』으로 개명한 창간호는 여성·교양(17.7%), 광고(21.9%)로 광고란의 비약적 확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여성지의 성격이 여성의 문화의식 향상에서 상업적 오락성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송유재, 『여성잡지에 나타난 한국여성상 분석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 연구원, 1985. 2. 15쪽.

함부로 생각해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행복도 잃은 것이 아니라며 현재 자신의 삶에 충실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 서술자의 태도에서 보이는 전근대적인 순결 이데올로기의 그들과 자신의 감정에 충실했던 순간을 적극적으로 묘사하는 서술의 이중성은 당시 여성들이 갖고 있는 성 의식의 단면을 보여준다.

이러한 적극적인 서사와 여성의 타자화 된 ‘몸’의 체험은 ‘삼각관계’, ‘사랑의 실패’와 같은 주제의 글에서 반복해서 드러난다. 이들 수기에는 여성자신이 ‘몸’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남성에 의해 타자화 되고 있다. 여전히 남성에 의해 여성의 ‘몸’은 성적인 대상물이 되고, 더럽혀진 ‘몸’에 대한 죄의식과 자책에 빠지게 된다. 이러한 서술자의 태도는 ‘정조’와 ‘순결’을 지킨 여성은 떳떳하고 자유로울 수 있지만 ‘몸’이 타락한 여성은 불안과 죄의식 속에서 괴로울 수밖에 없다는 여성에 대한 이중적 가치를 강제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이 자신의 ‘성’을 솔직하게 적극적으로 서사화하기 시작하고, ‘몸의 서사’를 공론화하기 시작한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이상에서 『女苑』의 ‘수기’에 드러난 여성의 자기서사를 통해 산업화 시기에 여성이 체계적으로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고 사적 영역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는 여성 자신의 주체적인 선택이라기 보다는 국가 주도의 경제 개발 프로젝트의 연장선상에서 이해될 수 있다. 여성의 역할을 가정 내적 영역에서 찾음으로써 남성과 여성의 영역을 이분화 하고 성별 고정 관념적인 여성상을 구성해 내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주체적 인식의 확대는 사회적 담론의 자장 안에 머무르는 수동적 태도와 적극적 저항의 의지로 분화되며 새로운 여성상을 모색하게 된다. 이러한 모색의 과정은 여성의 서술자아와 체험자아의 분열적인 목소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女苑』의 ‘수기’에는 여성이 근대 사회의 주체로서 편입되기보다는

남성 혹은 공동체의 결여된 부분을 보완하는 보조자로서의 역할이 강제되고 있었음이 드러난다. 이러한 과정 중에 여성이 겪어야 했던 갈등을 개인의 문제로 환치시킴으로써 개인의 극복의지와 초월적 태도가 관건임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해결 방식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여성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몰아가고, 여기에 부합되지 못한 여성은 상대적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여성에 대한 이분법적 태도는 '수기'의 응모 주제와 연결 되어 전쟁미망인의 수기에서 시작된 독자 응모 수기는 점차로 사회적 관심사 중심으로 개인의 문제를 다루고 이에 대한 독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편집의 의도가 전제되었음은 <手記選後感>을 통해 '재미와 감동, 읽는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으로 여러 편 중에 선택했다는 진술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도움이 된다는 말은 개인의 체험이 독자와 공감은 물론 당시 현실 속에서 관심을 끌만한 소재와 재제를 제시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할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女苑』이 체계적으로 여성을 사회적 합의에 조응시키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발간사에서 여성의 문화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겠다는 당초의 취지는 1960년대 후반에 들어서면서 찾아 온 경제적 안정과 매체의 상업성이 결합되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때 서사의 차원에서 가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서사의 노골화와 통속성에서 찾을 수 있다. 이때 서술 태도에 있어서도 변화의 조짐을 보이게 되는데, 이때 서술은 고백과 감정의 공유를 지향하기보다는 서사성에 중심이 놓이게 되고, 수기에 나타난 여성의 체험은 대상화 되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 여성의 행복, 일, 자아실현 등과 관련한 경험의 공유는 축소되고, 사회적 이데올로기와 연결된 담론이 확대되는 양상으로 이

어진다. 그러므로 ‘수기’에 나타난 여성의 다양한 체험의 서사회는 당시 여성과 관련한 담론 형성과 깊은 연관이 있으므로 이들 수기에 나타난 여성의 자기서사와 서술태도를 고찰하는 것은 사회적 담론과 상호 관계 속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당대 사회가 요구하는 여성에 대한 사회적 역할과 지위는 여성 스스로가 원하는 바와는 차이가 있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여성들의 삶을 억압하고, 갈등 속에 빠뜨렸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女苑』의 ‘수기’에 드러난 여성에 대한 이중적 가치는 여성의 삶을 억압하고 있는 사회적 이데올로기에 대한 비판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비판은 ‘수기’의 서술자아와 체험 자아의 의식의 차이를 통해서 드러나고, 체험 자아는 자신의 체험을 통해 외부적 억압에 저항하지만 그녀를 둘러싼 환경은 서술자아로 하여금 순응적 태도를 견지하게 한다. 이 사이에 드러난 간극 혹은 균열은 독자들로 하여금 동조와 저항이라는 이중적 반응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이때 독자의 반응은 선택과 배제의 서사구조로 수렴된다. 긍정적 여성의 서술은 높이 평가하고, 문제적 여성은 비판하는 이중적 태도로 이상적 여성상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이때 여성 서술자는 규범적 서술자아와 체험자아 사이에서 충돌하게 되지만 사회적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선택을 강요받게 된다.

5. 맺음말

이상에서 『女苑』에 실린 ‘수기’에 드러난 여성의 체험이 사회적 맥락 안에서 어떻게 자기서사화 되고, 당시 시대상황과 맞물려 수용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근대화·산업화를 표방하던 1950년대 중·후반에서 1960년대를 가로지르는 역사적 격동기에 여성에게 부여된 지위와 역할은 시대적 요구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사회적 담론으로부터 자유로

울 수 없었다. 여성의 삶은 자신의 선택이었거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었거나 간에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는 방향에 맞춰 재편성되었다.

여성들은 '수기'를 통해 사회적 격동기에 달라진 자신들의 역할과 그들이 직면한 문제를 솔직하게 토로할 수 있게 되고, 타인과 소통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체험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들의 고백과 공감은 '수기'의 서사적 특성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필자 즉, 서술자가 자신의 경험을 진솔하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독자와의 공감대는 쉽게 형성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수기'에서 여성의 자기서사는 고백과 공감으로 서사화 되고, 선택과 배제의 이분법적 서사 구조를 통해 동의와 저항의 양상으로 수용되고 있다. 독자는 서술자의 체험 중에 자신과 유사한 경험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을 때, 서술자의 입장과 선택을 수긍하게 된다. 반면에 독자는 서술자의 체험 중에 동의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항의 반응을 통해 새로운 합의점을 도출하게 된다.

『女苑』의 폭넓은 독자층과 구독 지역을 감안한다면 '수기'에 나타난 다양한 여성의 삶은 당대의 시대적 흐름과 사회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당시 정부는 국가재건 사업에 여성을 적극적으로 편입시키되 성별역할분담에 기초하여 여성을 가정 내 머물면서 생활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조정자 역할을 강조한다.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남성 중심적 글쓰기를 통해 여성에게 학습되고, 학습의 결과 여성들은 남성 중심적 사고와 사회적 담론을 당연하고 자신들이 주체적으로 선택한 것으로 여기는 착각에 빠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요구는 여성 자신의 요구가 아니므로 여성에게 갈등 요소로 남아 있다. 『女苑』의 '수기'에는 당시 여성들이 겪은 다양한 갈등이 서사화 되고 있는데 다양한 계층의 여성들이 투고한 수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층과 직업에 따른 담론의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는 점은

개별적 체험임에도 불구하고 통어적인 기제가 작동하고 있었음을 추측할 수 있다.

『女苑』에 나타난 ‘수기’담론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와 결합되어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여성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의식의 형성, 여성의 체험을 자기 서사화 하고, 주변적 삶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여성적 글쓰기를 통한 자기서사 확보는 여성의 주체성을 확인하고 여성 스스로 시대적 이념에 부응하는 새로운 인간상을 구성하기 위한 발판이 될 수 있다.

다만 남성 수기와 여성 수기의 차이점을 비교 연구한다면 여성적 글쓰기의 자기서사와 남성의 서사가 어떻게 다른지 해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여성과 남성의 글쓰기 방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여성의 자기서사가 개인적 서사를 넘어 문학적 서사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도 규명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 참고문헌

1. 기본자료

『여원』 1955년 10월호~1970년 4월호

2. 논문, 기사 및 단행

송유재, 『여성잡지에 나타난 한국여성상 분석연구』, 이화여대 한국문화 연구원, 1985. 2.

이옥지, 『한국여성노동자운동사』, 한울아카데미, 2001.

이해영, 권태환 편 『한국사회-인구와 발전 제1권, 인구경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구 및 발전 문제 연구소, 1978.

한국역사연구회 현대사연구반, 『한국현대사 3-1960·70년대 한국사회와 변혁운동』 풀빛, 199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1960년대 사회변화연구:1963~1970』. 백산서당. 1999.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현대사연구소 편, 『한국현대사의 재인식 5-1960년대의 전환적 상황과 장면정권』, 도서출판 오름. 1998.

고정기, 『여성지의 사회적 기능』, 『여성동아』, 1976. 2.

김광웅, 박용치, “人口問題의 政治, 行政의 意味”, 이해영·권태환 편 『한국사회-인구와 발전 제4권, 인구경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구 및 발전 문제 연구소, 1978, 1223~1276쪽.

김정화, 「1960년대 기혼여성의 노동-도시빈민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15호. 2005. 63~101쪽.

김춘수, 「1960~70년대 국가의 여성 배제 전략 -기술교육을 중심으로」, 『역사연구』 제12호, 2003. 69~107쪽.

박혜숙, 「여성 자기서사체의 인식」, 한국여성문학학회 편, 『여성문학연구』 제8호, 2002. 12. 7~30쪽.

박혜숙, 최경희, 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 (1)」, 『여성문학연구』, 제7호, 2002. 323~349쪽.

_____, 「한국여성의 자기서사 (2)」, 『여성문학연구』, 제8호,

2002. 306~328쪽.
- _____, 『한국여성의 자기서사 (3)』, 『여성문학연구』, 제9호, 2003. 233~274쪽.
- 신 건, 『1960~70년대 근대화 프로젝트와 여성담론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1.
- 이임하, 『1950년대 여성교육에서의 성(性)차별과 현모양처 이데올로기』, 『동방학지』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2003. 293~327쪽
- _____, 『한국전쟁과 여성노동의 확대』, 『한국사학보』 제14호, 2003. 251~278쪽
- 이정희, 『여성의 고백담과 근대체험』, 『비교문화연구』 제5호, 경희대학교 부설 비교문화연구소, 2002. 103~116쪽
- 조 순, 『經濟成長 1953~1976』, 이해영, 권태환 편 『한국사회-인구와 발전 제1권, 인구경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인구 및 발전 문제 연구소, 1978, 197~238쪽
- 추광영, 『제8장 1960~70년대의 한국의 사회변동과 매스 미디어』,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6. 231~271쪽

Abstract

The Study of Woman's Self-Narratives

- focusing on the 'private papers' of woman magazine *Yeowon*

Jang, Mi-young

In this paper is studying the descriptive aspect of a woman's self-narratives and its meaning in 'private papers' of woman magazine *Yeow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woman's self-narratives in 'private papers' is that the woman sincerely confess her life spontaneously and identify herself through the communication with the readers. It is important for woman to describe her life experience by herself in that that's the point where the woman's self expression starts out of the neglected existence. This is because it can be regarded as the starting point of sharing woman's solidarity sense and her experience and seeking for the independent woman role model.

Despite of the woman's initiative participation, the woman's self-narratives in 'private papers' is partially not free from the social discourse of woman. This is related with the characteristic of its medium, magazine, so the choice of theme and content is managed by the editor according to his or her intention. The woman writer is reacting to the social agreement between woman's experiential narration and the editor's intention through consent or protest.

I will consider not only how the woman's experiences become self-narratives in 'private papers' of *Yeowon*, but also the 'private papers's narrative characteristic and its meaning by woman's self-narratives and the relevance of dominant ideology.

Key words : woman's self-narratives, confession, communication, woman's solidarity sense

- 본 논문은 10월 30일 투고되어 11월 24일에 심사가 완료됨과 동시에 게재가 확정되었음.